

인천광역시 야생동물 발자국 2023



지하철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2번 출구
버 스 인천대학교공과대학 정류장 하차 - 909, 8
셀트리온(주) 앞 정류장 하차 - 6, 9, 91



인천광역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자연 복귀 이외에도 앞으로 인천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자 교과를 벗어나 흥미로운 주제를 활용한 **야생동물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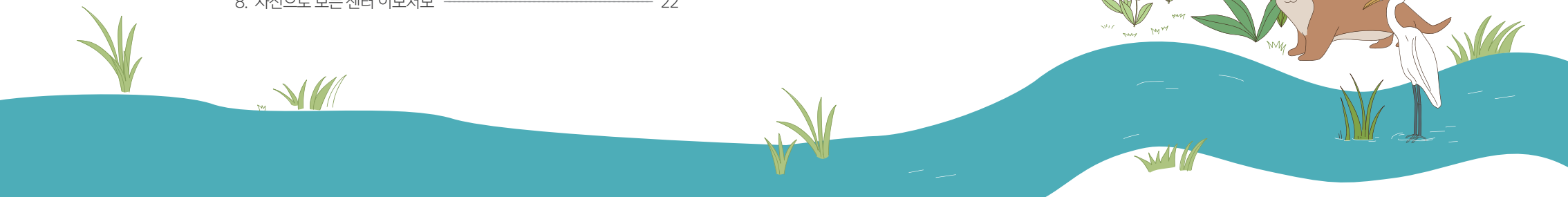
※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장소이므로 사전 접수한 학교 및 단체에 한하여 방문이 허용됩니다.



Contents

1. 인천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개	4
2.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 발견시 대처법	6
3. 2023년 야생동물 구조 통계	8
4. 2023년 야생동물 구조 사례	10
5. 2023년 특집	12
6. 올 한 해 자연으로 돌아간 동물들	15
7.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18
8. 사진으로 보는 센터 이모저모	22

교육신청 : 웹사이트 www.ggoomgil.go.kr 또는
저희 센터에 유선 **T. 032-858-9704**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한 회당 15명 내외의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더욱 알찬 내용
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인천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인천 지역 야생동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372번길 21

규 모 부지 약 3,500㎡, 건물 700㎡

실내 | 진료실, 입원실, 먹이준비실, 생태교육·홍보실 등
실외 | 야생동물 계류시설, 생태 관찰 습지 등

개 관 2018. 3. 27.

진 료 X-ray, 초음파, 내시경, 혈액분석기 등
24종 이상의 의료장비 보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역할



032-858-9704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고 시 진행 절차



1 접수·구조

- ▷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의 신고 접수
- ▷ 동물의 이송 및 인계인수서 작성



2 진단검사

- ▷ 생체상태, 외과적 부상 등 초기신체검사
- ▷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정밀검사



3 치료(수술)

- ▷ 수액처치, 약물투여 등 적절한 치료
- ▷ 골절 및 외상 치료 등 외과적 수술



4 보호·관리

- ▷ 먹이급여, 행동관찰 등 지속적인 사육관리
- ▷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5 재활훈련

- ▷ 회복 완료된 야생동물 야외 적응훈련
- ▷ 비행능력 및 먹이사냥 능력 평가



6 자연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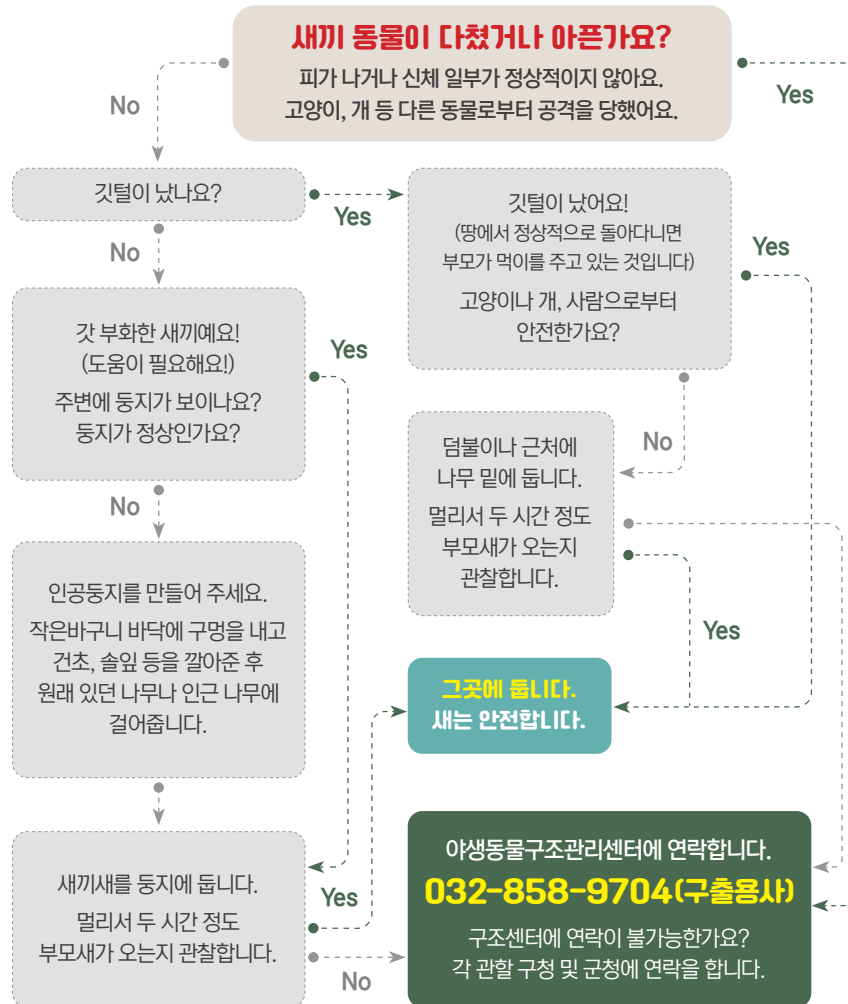
- ▷ 야외 적응이 끝난 개체 자연으로 복귀
- ▷ 가급적 구조된 장소 인근에서 실시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 발견시 대처법



새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친 야생동물 발견 시 주의사항



- 01 동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라면, 사람도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한 후 조치해 주세요.
- 02 동물 구조 시 관계기관으로 즉시 이송할 수 없다면 적당한 상자에 보호해 주세요.
탈출은 못하도록 모든 면은 잘 막되 숨 쉴 구멍은 확보해야 합니다.
- 03 조류 중에도 특히 맹금류는 발톱과 부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한 장갑을 착용하고,
수건이나 이불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04 너구리나 삥 같은 소형 포유류는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05 임시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생태를 고려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각 군구 야생동물 담당

기 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 구 청	환경 보호 과	☎ 760-7393
	친환경조성과 (영종도)	☎ 760-7734
동 구 청	환경 위 생 과	☎ 770-6501
미추홀구청	환경 보 전 과	☎ 880-4379
연 수 구 청	환경 보 전 과	☎ 749-7901
남 동 구 청	환경 보 전 과	☎ 453-2606
부 평 구 청	환경 보 전 과	☎ 509-6643
계 양 구 청	환 경 과	☎ 450-5412
서 구 청	환경 관 리 과	☎ 560-4355
강 화 군 청	환경 위 생 과	☎ 930-3334
웅 진 군 청	환경 녹 지 과	☎ 899-2614

2023년 야생동물 구조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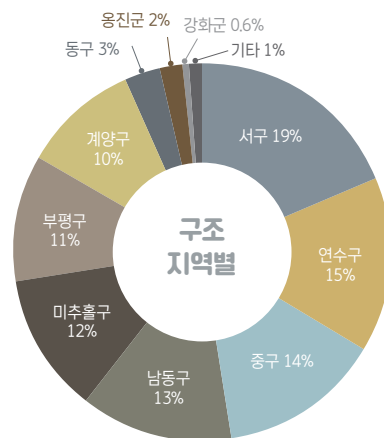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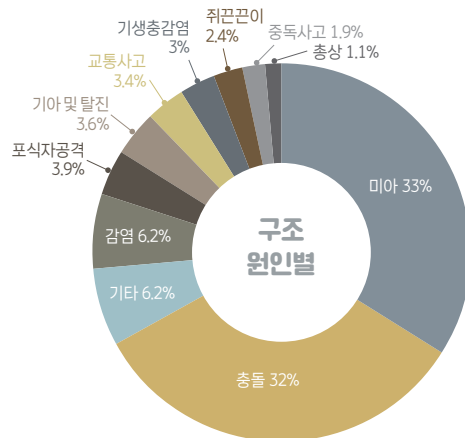
● 구조현황

(단위: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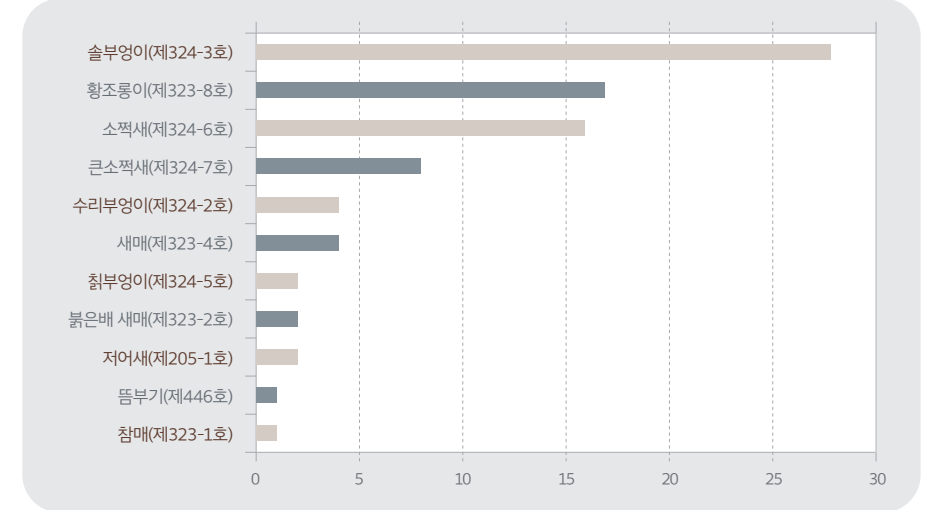
구분	총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계	고라니	너구리	박쥐	족제비	청설모	계	저어새	참매·새매	붉은배새매	말뚝가리	황조롱이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참부엉이	솔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큰기러기	해오라기류	도요류	백로류	오리류	갈매기류		기타
구조접수	533	86	21	32	22	6	5	438	2	5	2	1	17	4	4	2	28	16	8	4	5	2	4	53	19	262	9
방생이첩	260	42	3	17	17	3	2	218	1	0	1	1	12	3	4	2	17	13	5	1	0	2	1	39	2	114	0

※ 조류(기타) : 멧비둘기, 직박구리, 박새, 어치, 딱새, 물까치, 제비, 진박새, 물총새, 쇠뚝새, 호랑지빠귀, 까치, 곤줄박이, 동박새, 산솔새, 집비둘기, 검은이마직박구리, 왜가리, 꿩, 밀화부리, 빠꾸기, 파랑새, 참새, 쇠딱다구리, 왕눈물떼새, 노랑배진박새, 횡등새, 뜰부기, 때까치, 되솔새, 큰유리새, 쇠솔새, 솔딱새, 노랑할미새, 오색딱다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한국뜸부기, 꿩꼬리, 방어리빠꾸기, 홍때까치, 닭, 호반새, 쇠유리새, 쇠박새, 울새, 황로, 알락할미새, 숲새, 후투티, 물닭, 노랑지빠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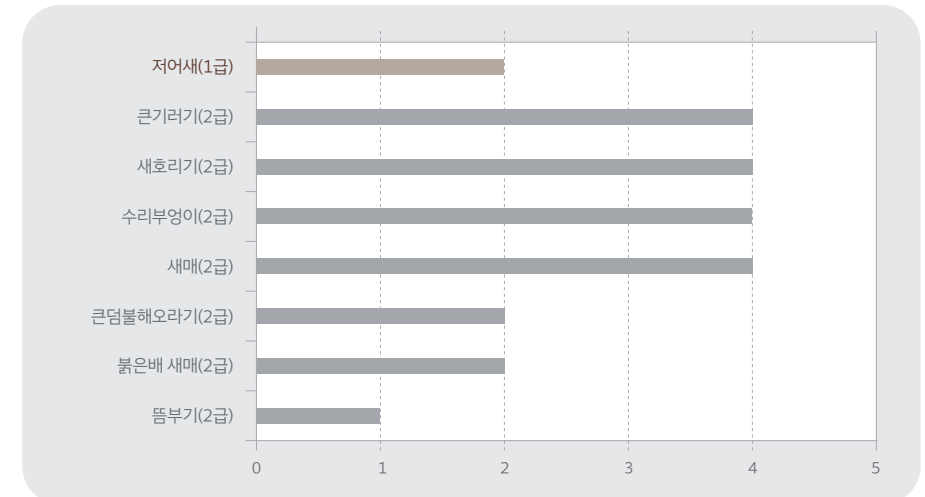
※ 파충류 : 리버쿠터(생태계교란종), 붉은귀거북속전종(생태계교란종)



● 천연기념물 구조현황 - 85마리



●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조현황 - 24마리



2023년 야생동물 구조 사례

곤줄박이

2023-500~501 (2023.11.22.~12.26)



곤줄박이(한국민속문화대백과)
2023. 11. 22. 입소 시 모습

2023년 11월 부평구에서 쥐포획용 끈끈이에 새가 붙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조하여 센터로 이송한 후 확인해보니 곤줄박이 2마리였으며, 그 중 한 마리는 탈출을 위해 몸부림치던 중 날개깃과 꼬리깃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곤줄박이는 참새목 박새과의 텃새로 참새 크기의 소형 조류이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하여 자주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쥐끈끈이는 접착력이 매우 강하고 접착제의 양이 많아 작은 새뿐만 아니라 맹금류들도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쥐끈끈이에 놓아둔 먹이나 포획된 쥐를 탐내다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분가루를 묻혀 점성을 낮추고 2~3일간 나눠서 깃털이나 몸에 붙은 끈끈이를 가루로 비벼서 떼어 냈습니다. 소형 조류는 공포감이나 흥분으로 인해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다행히 두 마리가 함께 입소하여 흥분도 완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끈끈이 제거 완료 후 손상된 깃을 뽑아 새로운 깃이 나도록 유도하였고 2~3주 후 깃재생이 확인되었으며 12월 26일 두 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호랑지빠귀

2023-0062 (2023.4.18.)

2023년 4월에 연수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탈진한 상태의 호랑지빠귀가 발견되어 주민의 신고로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지빠귀는 늦봄이나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새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며 일본이나 시베리아 남부, 오스트레일리아까지도 분포하는 새입니다. 소름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으로 한밤 중에서 새벽까지 “하이-오오-”하는 가냘픈 소리로 울어 이 울음소리를 귀신을 부르는 소리, 혹은 귀신의 목소리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구슬픈 소리라고도 합니다.

진료 결과 충돌로 인한 폐쇄 골절과 개선충 감염이 확인되었으나 다행히 부상정도와 개선충 감염이 심하지 않아 치료 후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였으며 무사히 방생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폐사할 수 있었던 작고 약한 새를 무사히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탈진한 호랑지빠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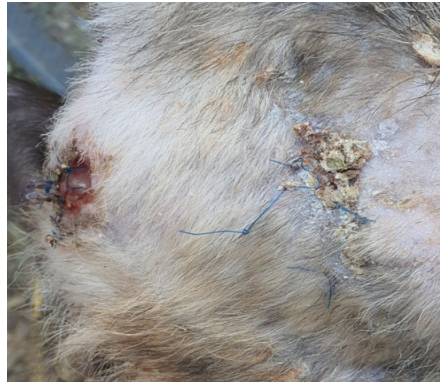
진료중인 호랑지빠귀

● 너구리

2023-417 (2023.9.26.)



우측 둔부의 원인모를 열상



재수술을 거치면서 회복된 상처

2023년 여름 미추홀구 송학산에서 너구리가 탈진된 상태로 발견되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 결과 심한 개선충증과 원인 불명의 열상으로 인한 감염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측 둔부의 열상에 대해 2차례의 봉합 수술과 염증치료를 실시하였고, 개선충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양보충 등 사양관리를 통해 방사 후 생활할 수 있는 정상 체력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의 자연 복귀는 생활했던 근거지 위주로 선택하지만 본 너구리는 도시화되고있는 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근거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지역이 넓은 강화군 하도리 저수지 인근으로 선택하였으며 2023.11.21.에 자연 방사하였습니다. 약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잘 견뎌낸 만큼 앞으로로도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자연으로 돌아간 동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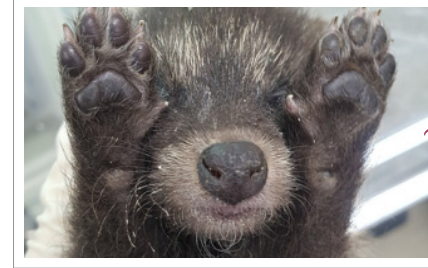
자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2023.6.12. 계양구 서운동에서 어미를 잃은 상태로 발견된
흰뺨검둥오리 9마리



2023.8.2. 서구 공촌천에서 자연 방생



2023.5.23. 계양구 서운동에서 어미를 잃은 상태로 발견된
너구리 5마리



2023.8.24. 강화군 내가면에서 자연 방생



2023.7.17. 부평구 산곡동에서 사고로 어미를 잃은 상태로
발견된 물까치



2023.8.24. 연수구에서 자연 방생

포식자의 공격

2023년도 센터에 입소된 동물을 구조 원인별로 구분하면 어미를 잃은 동물이 32.5%, 충돌·추락이 31.7%, 인가침입 6.2%, 질병감염 6.0%, 포식자 공격 4.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동물의 신체에 직접적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충돌·추락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포식자의 공격으로 매년 4~6%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식자의 공격으로 부상당한 22마리의 동물 중 치료 후 회복되어 자연으로 돌아간 동물은 3마리로 13.6%의 방생률을 보였고 이는 전체 방생률 48.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포식자 공격에 의한 손상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포식자는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까치는 단독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영역 본능이 강하고 공격성이 높은 텃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들어오는 동물은 가리지 않고 공격하곤 하며 비둘기, 부엉이뿐만 아니라 맹금류들도 까치떼에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치의 공격으로 센터에 입소된 동물은 안주애기박쥐, 쇠독새, 소쩍새,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이 있었고 부상이 적었던 소쩍새만이 회복하여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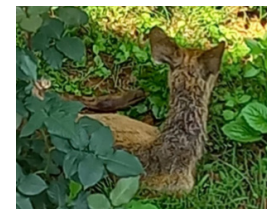
독수리를 쫓아가며 공격하는 까치
(환경스페셜 100회 영상 캡처)



비둘기를 사냥하는 고양이
(NEWSIS 기사 캡처)



고양이에게 공격당한 소쩍새



들개에게 공격당한 고라니



고양이에게 공격당한 멧비둘기



공격 손상입은 청둥오리

야생동물 공격 손상의 68% 이상은 고양이에게 의한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오며 병균을 옮기고 곡식을 갉아먹는 쥐를 잡는 유용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가족화, 일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 동물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유기견과 함께 도심 속 동물의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해 동물은 주로 멧비둘기, 직박구리, 제비 등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소형 조류가 대부분이지만 건물 등에 충돌하여 정상 활동을 못하는 청둥오리나 소쩍새 등이 2차적으로 공격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변화하는 환경에 동물마다 적응하는 속도는 다를 것입니다. 야생동물센터에서는 적응이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까치나 고양이 등의 포식자들이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 손상뿐만 아니라 회복된 동물의 자연복귀를 위해서도 이런 포식자들이 없는 방생지를 찾아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센터부지 내 나무에도 까치집이 있고 인접한 곳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식자’라고 하면 흔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친숙함과 익숙함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동물이 도심 속 생태계에서 포식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센터 이모저모



가벼운 부상 - 청둥오리



가벼운 뇌진탕 - 솔부엉이



방생을 위한 되새



날개가 골절된 말뚝가리



전주와 충돌한 큰기러기



어미잃은 까치



이소과정 중 등지에서 추락한 물까치



어미잃은 족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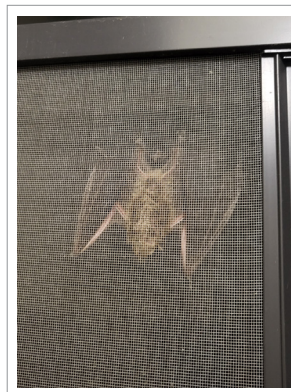
우측날개 골절 - 황조롱이



우측날개 복합골절 - 최부엉이



날개가 골절된 말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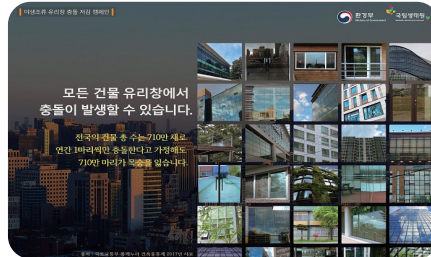
방충망에 붙은 박쥐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 유리창 충돌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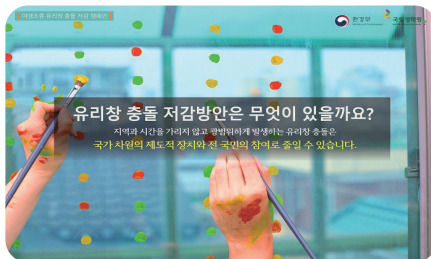
매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

전국 건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서
매일 수만 건씩
충돌이 발생합니다.

모든 건물 유리창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건물 총 수는 710만 채로
연간 1마리씩만 충돌한다고 가정해도
710만 마리가 목숨을 잃습니다.

7,100,000
1,100,000

유리창 충돌
저감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유리창 충돌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전 국민의 참여로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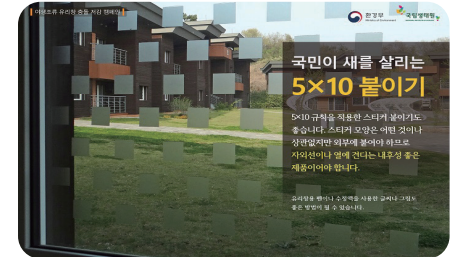
비행할 수 없는 틈, 5X10 규격

5X10 규격은 새들이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높이 5cm, 폭 10cm의 틈,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류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물 유리창에 물감,
스티커 등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표시하면 새들은
자신이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회피하여 비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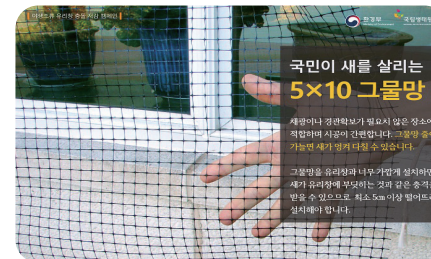
국민이 새를 살리는 5X10 점 찍기

유리창에 5X10 규격으로 8mm 이상의 점을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건물 외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실내에 점을 찍을 경우,
외부 풍경의 반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 고층아파트라면 위험하므로 내측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새를 살리는 5X10 붙이기

5X10 규격을 적용한 스티커 붙이기도
좋습니다. 스티커 모양은 어떤 것이나 상관없지만
외부에 붙여야 하므로 자외선이나 열에 견디는
내후성 좋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유리창용 펜이나 수정액을 사용한
글씨나 그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새를 살리는 5X10 그물망

채광이나 경관확보가 필요치 않은 장소에
적합하며 시공이 간편합니다. 그물망 줄이
가능하면 새가 걸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물망을 유리창과 너무 가깝게 설치하면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5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예방법 실천으로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새들의 죽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시 금지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 기존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027년 12월 13일까지)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시·도에 현재 시설 현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20.



시·도별 신고처

구분	부서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68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3634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4211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032-440-3716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42-270-5442
광주광역시	환경보전과	062-613-4141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4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15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13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과	033-249-2776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043-220-4034
충청남도	탄소중립정책과	041-635-4415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063-280-4533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061-286-7032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22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663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73





아메리카너구리(라쿤)

2023년 12월 14일 부터

「야생생물법」개정('22.12.13. 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전시가 금지되는 동물과 가능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전시 금지 동물

야생동물

- 포유류 모든 종(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전시금지)
- 조류 중 전시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
- 파충류 중 전시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 (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전시금지)
-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 (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 전시금지)

전시 가능 동물

야생동물

- 조류 중 앵무목·뿔과·되새과·납부리새과
-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 (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 절지동물문 중 독성이 없거나 약한 종 (타란툴라 등 포함)
- 수산 및 해양동물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 가축(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이외 오소리 등 농식품부 고시 동물)

동물 종류와 관계없이 전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
- ② 연구·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생물자원관, 야생동물 구조센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서식지의 보전기관, 과학관, 국립수목원에서 전시하는 경우
- ③ 야생동물 판매, 수입, 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25.12.14.부터 시행)
* 2025.12.14.까지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예를 할 수 있나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3.12.13.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만 해당됩니다.



미어캣

야생동물 전시자는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시시설

판매시설

대상 시설

-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시설
- 야생동물 이동전시업
- 지자체·개인 등이 운영하는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

- 야생동물샵 등 판매시설

※ '25.12.13.이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득할 경우 제한없이 전시 가능, 현재는 '애완동물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경우 동물원에서 제외

신고 방법

- 신고서*에 현재 보유 중인 전시금지 종, 개체수, 소재지, 대표자 등을 작성하여 2023.12.13.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1 서식

유의 사항

-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전시하는 경우 동물원에 해당되므로 신고 시 유의
- 이동전시업은 주된 소재지를 명시
-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22.12.13.)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만 신고 가능, 신고 시점에 보유중인 전시금지 종을 신고
-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전시하더라도 '애완동물 도소매업' 등록 시설은 동물원에서 제외
-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22.12.13.)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신고 수리, 신고 시점에 보유중인 전시금지 종을 신고

2023년 12월 14일 법 시행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전시시설

판매시설

신규영업 및 미신고자

- 전시금지 동물의 신규 전시 금지 (보유만 가능)

- 2025.12.14. 이후 야생동물 판매업허가를 득할 때까지 전시금지 동물의 신규 전시 금지(보유·판매만 가능)

신고한 자 (기존시설)

- 전시금지 동물에게 아래 행위 금지
 - ① 올라타기
 - ②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 ③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전시가능 동물은 종전대로 전시
- 신고서 유의사항 제3호 준수 필요
- '27.12.14.부터는 전시금지 적용

- 전시금지 동물에게 아래 행위 금지
 - ① 올라타기
 - ②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 ③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전시가능 동물은 종전대로 전시
- 신고서 유의사항 제4호 준수 필요
- '25.12.14. 이후 야생동물 영업허가 필요 (추후 세부기준 규정)